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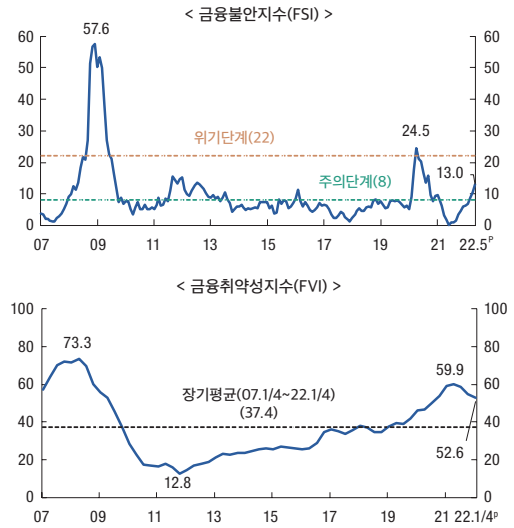


## [개황]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여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주의단계(임계치 8)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으며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은 우리 경제의 주요한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산가격이 일부 조정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과거 장기평균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 금융불안지수(FSI)<sup>1)</sup> 및 금융취약성지수(FVI)<sup>2)</sup>



주: 1)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 비율(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분기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자료: 한국은행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경기회복과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시장금리 상승, 업종별 경기회복 양상 등에 따라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험선호 성향이 급변하는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증가,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 및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확대될 수 있다.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투자자금 유입규모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능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 민간부채 누증 및 높은 주택가격, 업종별 불균등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 증대 가능성 등이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번 보고서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금융안정 차원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먼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유동

성·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자산시장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향후 자산시장 조정 정도에 따라 가계부문 소비가 제약되고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한 기업대출 및 자영업자대출도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금융지원조치와 맞물려 잠재부실을 이연·누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내외 리스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부채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합리적인 조정, 유동성(liquidity) 지원보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solvency) 관리에 중점을 둔 금융지원정책 운용,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활용 등의 정책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위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암호자산 및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이들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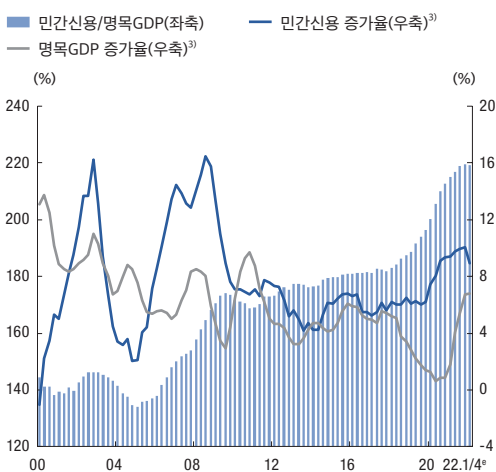
##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 I. 신용시장

민간신용은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①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219.4%(추정치)로 전년말(219.5%)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명목GDP 성장세 확대와 함께 가계신용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그간의 높은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 민간신용<sup>1)</sup>/명목GDP<sup>2)</sup> 비율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2년 1/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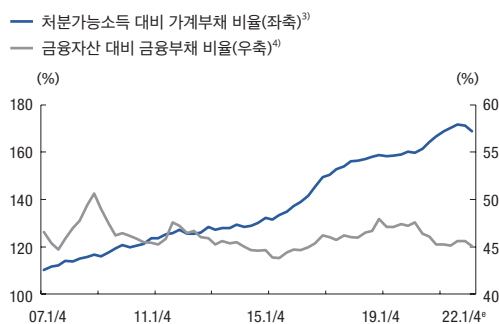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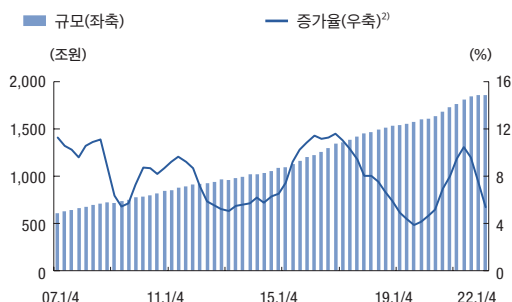
②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2년 1/4분기말 1,85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2년 1/4분기말 168.9%(추정치)로 전년말 대비 2.2%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 추정치, 45.0%)도 전년말(45.6%)보다 낮아졌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차주 등의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계신용<sup>1)</sup>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22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4) 자금순환통계 기준(22년 1/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③ 기업신용을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시설자금 수요 증가, 은행의 기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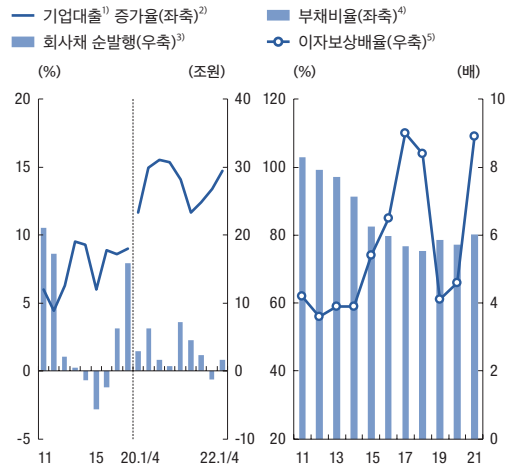
출 취급 확대 노력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회사채와 CP도 순발행되었다. 기업대출은 2022년 1/4분기말 1,60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시설자금 수요도 지속되면서 16.0%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건전성은 실적 회복 및 수익성 증대로 빠르게 개선되었다. 2021년말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80.1%로 2020년말(77.2%) 대비 상승하였으나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14.6%로 2020년말(15.3%)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1년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8.9배로 2020년(4.6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계기업과 취약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신용

## 기업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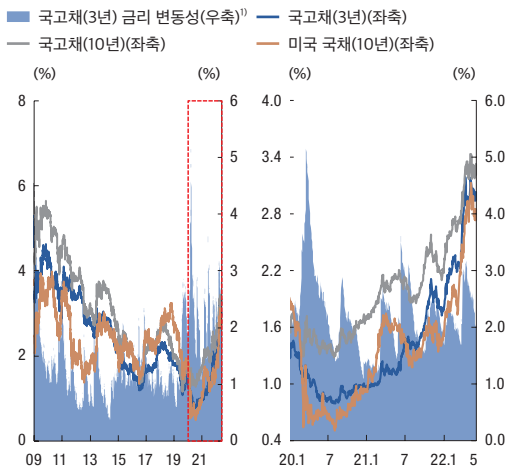
주: 1) 금융보험업 제외 기준이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전년동기대비  
 3) 점선 오른쪽은 분기중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5) 영업이익/총이자비용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IS-Valu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II. 자산시장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주식 및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①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큰 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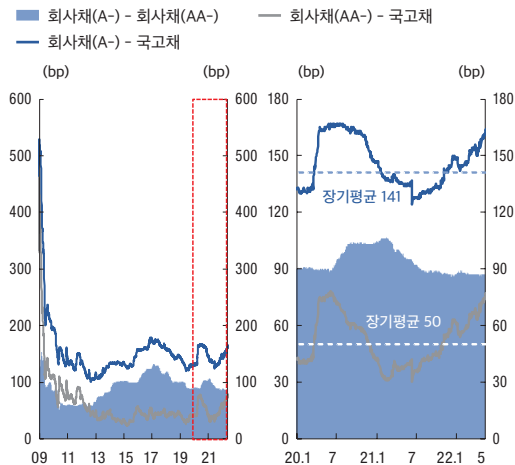
###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해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2)</sup>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2) 장기평균 값은 2010년 1월~2022년 5월 기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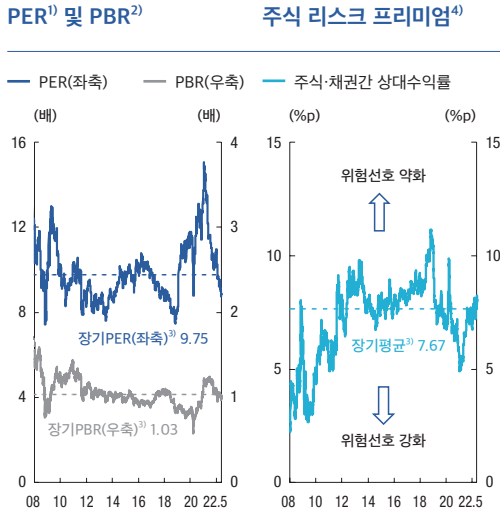
② 주가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하였다. 주가 변동성지수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상승하였다.

### 주가 및 주가 변동성



주: 1)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주가가 큰 폭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의 고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PER)은 5월말 8.86배로 장기평균(9.75배, 2010년 이후)을 하회하였다.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높을수록 위험선호 약화)은 5월 들어 장기평균(7.67%포인트) 수준을 상회(5월 31일 7.96%포인트) 하였다.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3) 2010년 1월~2022년 5월 평균  
 4)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국고채(10년) 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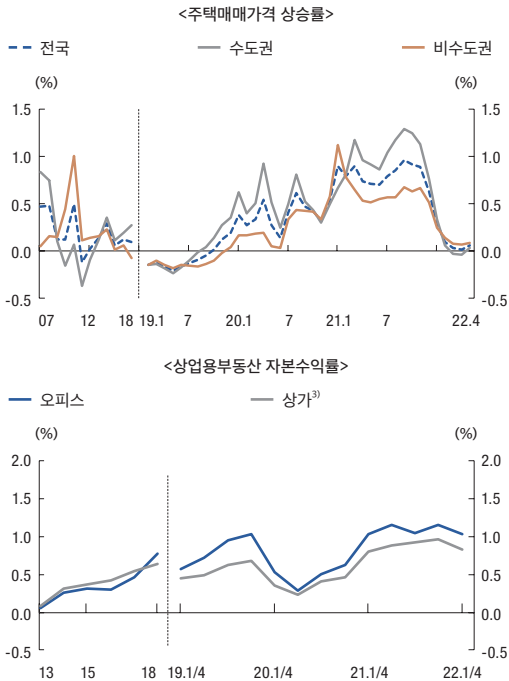
㉓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전월세시장은 전세가격 오름세가 큰 폭 둔화되었고 거래량은 월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자본수익률이 하락하였고 거래량도 감소하였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에 따라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및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²)



주: 1) 전월대비, 단, 2018년 이전은 전월대비 상승률의 연평균  
 2)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 단, 2018년 이전은 연평균  
 3)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 III.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① 일반은행의 건전성은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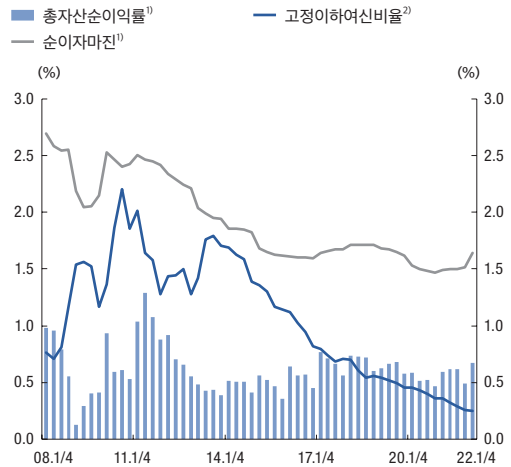
2022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20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하며 2021년 3/4분기(11.0%) 이후 확장세를 지속하였다.

자산건전성은 경기회복,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2년 1/4분기말 0.25%로 낮아지는 등 양호한 상태가 이어졌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2년 1/4분기 0.67% (연율환산 기준)로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0.59%)보다 0.08%포인트 상승하였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여부 등에 따라 취약차주의 잠재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을 보면 모든 업권에서 전년동기 대비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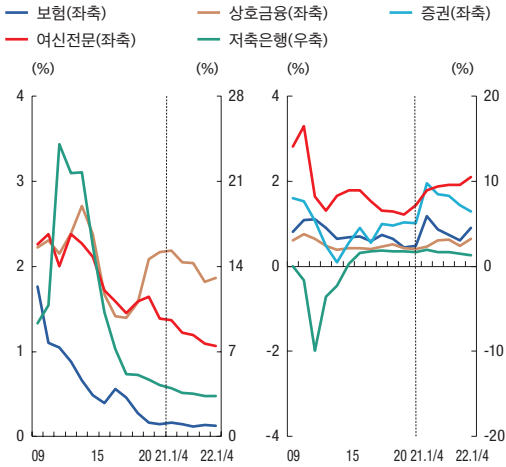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2022년 1/4분기말 3,3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늘어났으나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상호금융조합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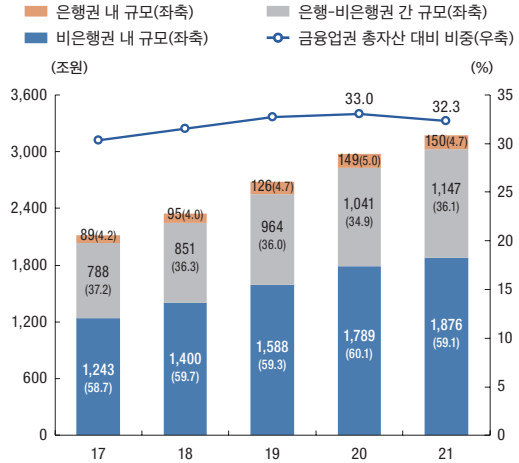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sup>1)2)</sup>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sup>2)3)</sup>



주: 1) 기말 기준, 증권회사 제외  
 2) 2020년 이전은 연간 기준, 2021년 이후는 분기 기준  
 3)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sup>1)2)</sup>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③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운용을 통한 상호거래는 2021년말 3,173조원으로 증가세(전년말 대비 6.5%)가 둔화되었다. 금융부문 총자산에서 전체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전년말 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비은행권 간 거래는 10.2%,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4.8% 증가하였으나 은행권 내 거래는 1.2%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상호거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6.1%로 전년말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분석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IV. 자본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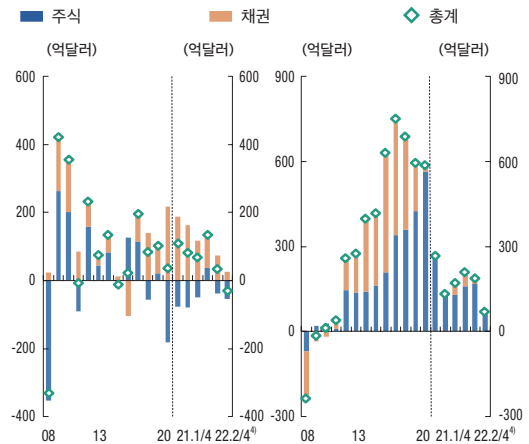
금년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외국인 증권투자자자금의 순유입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자자금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자금은 2022년 1~5월중 2억달러(주식 -95억달러, 채권 97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전망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되었다. 채권자금은 순유입을 이어갔으나 유입 규모가 축소되었다.

향후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자자금은 내외금리차 축소, 글로벌 리스크 증대 등으로 유입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투자자자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1~4월중 투자규모(261억달러)는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317억달러)에 비해 축소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sup>1)3)</sup>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sup>2)3)</sup>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3) 점선 오른쪽은 분기중 기준

4)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은 4~5월중,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은 4월중

자료: 한국은행

# [복원력]

## 1. 금융기관

일반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①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7.35%로 전년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하였으나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였다. 특히 보통주자본비율은 14.78%로 전년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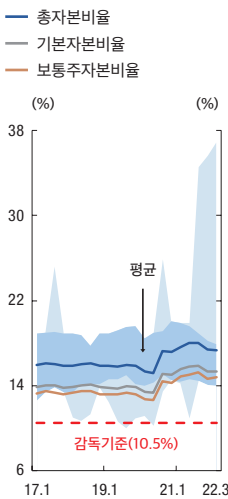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22년 4월말 104.6%로 전년말 대비 6.7%포인트 상승하였다.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말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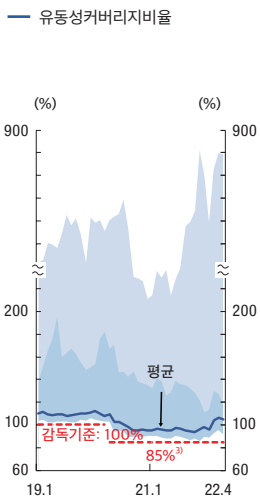
2022년 1/4분기말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707.9%로 전년말 대비 37.9%포인트 하락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은 208.8%로 전년말 대비 45.6%포인트 하락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1%로 전년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각각 18.6%, 8.2%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현재 복원력 수준은 양호한 상태이나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된 금융기관은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은행 총자본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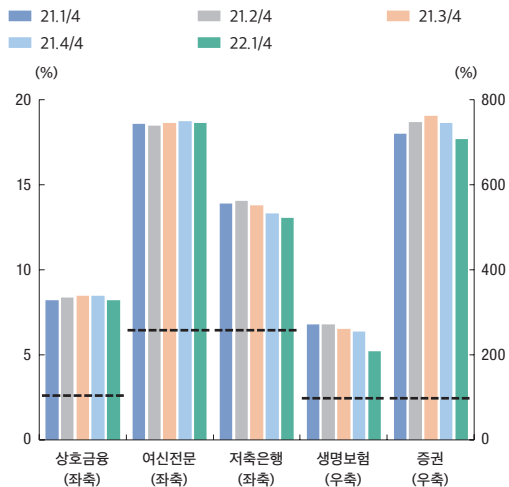
일반은행 LCR<sup>1)2)</sup>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를 나타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2) 고유동성자산/항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으로 8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sup>1)2)</sup>



주: 1)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2)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II. 대외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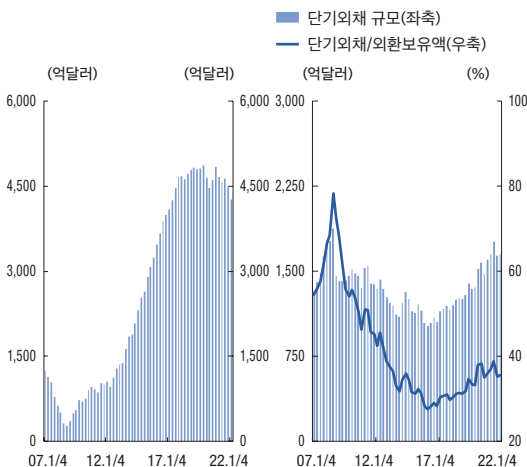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상황이나 지난 해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① 순대외채권은 2022년 1/4분기말 4,257.5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22억달러 감소하였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26.7%로 전년말(26.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②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한 4,477.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38.2%로 전년말(35.6%)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순대외채권<sup>1)</sup>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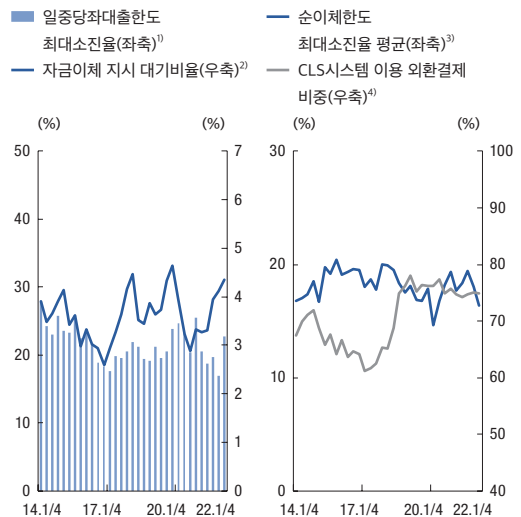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①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종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과 자금이체 지시 대기비율은 2022년 1/4 분기중 각각 22.8%, 4.4%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②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를 나타내는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16.3%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외환결제 중 외환거래를 시차 없이 결제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CLS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2022년 1/4분기중 7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 및 외환결제 시스템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되는 거래 제외)  
 3)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4)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018년중 외은지점 등 5개 금융회사가 CLS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동 비중이 큰 폭 상승  
 자료: 한국은행